

## 광주시·전남도 상생의 '민낯' 핵심사안 덮어두고 쉬운것만 보여주기

### 공방이전·연구개발특구 갈등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를 광주 연구개발특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특구 내 첨단3지구, 신룡지구 개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와 전남도의 기획조정실장, 추진인 등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연구위원회는 사안마다 양 지역 간 표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허성준 전 원장을 합의 추대할 것인지, 투표로 할 것인지 놓고 이 사들의 의견이 7대7로 팽팽히 맞서고, 신임 문순태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서도 15명 이사 중 8명만이 찬성했다.

광주·전남이 민선 6기 들어 상생의 기치를 들었지만, 비교적 손쉽고 단기간 성과와 도출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한 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 공방 이전, 연구개발특구 확정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갈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도 공직자 중심의 '논의구조'에 지역 내 여론주도층,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이들 사안에 대해 미래 비전과 세부 단계 과제를 마련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 연구개발특구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으로 확대해 연구소기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편입 면적은 8~9km 내외로, 전남이 6~7km, 광주는 2km 범위에서 협의하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고 용역을 발주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들이 5년간 국세 및 지방세 면제 등

세계 해택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행·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1년 첨단 1·2지구(6.1km), 첨단 3지구(3.8km), 진곡·신룡지구(5.4km), 나노지구(0.9km), 대학·기타지구(2.5km) 등 18.73km가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신룡지구는 아직 개발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으며, 첨단3지구는 개발 착수단계에 불과한데 지리적으로도 빛가람혁신도시로의 확장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경남 일부 지역을 포함하려 했지만 미래부에서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선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특구 확장은 물론 광주·전남 공방 이전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주전남연구위원회 및 이사장 선임 등 민감한 사안마다 광주·전남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덮어두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지역 일부에서는 과거부터 상당기간 누적돼온 사안을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이 논의하고 결론 내는 현재의 '상생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시·도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황식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1일 구성된 광주·전남상생협의회의는 '2015 하계 U대회 성공개최 협력' 등 2개 과제를 완료하고 ▲제2남도 학술 컨퍼런스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등 18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빛원전 핵폐기물 이송 쟁점 ▶6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K뱅크 ▶14면

블루오션 다도해-매화·고이도 ▶18면

## 文·安 충돌... 문밖 '야권재편' 움직임

### 여수 4선 김성곤 호남 불출마 선언... 중진들 입지 좁아져 20% 몰갈이·신당 동력 커지면 호남 정치권 요동칠 듯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 재편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새정치연합은 야권 재편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당내 주류 진영의 문재인 대표와

비주류 진영의 안철수 전 대표가 정면충돌 하면서 분당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9일 '문-안-박 공동지도부' 구성을 거부하고 '혁신 정당 대화'를 역제안하자 문재인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안을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혁신은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이며 인적쇄신까지 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안 전 대표의 혁신 전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표직 사퇴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 전 대표도 이날 광주를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개인이나 각 계파의 이해 타산이나 대선 출마 욕심이 앞서면 공멸한다"고 강조, 문 대표를 압박하며 혁신 전대 개최를 재차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혁신안을 밀어 붙인다면 비주류의 반발 등을 부르며 결국 새정치연합은 분당의 수순을 밟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 20%를 몰갈이하는 당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진행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당내 획기적 변화의 기류가 없다면, 오는 9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호남 등을 중심으로 당내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의 신당 합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당 세력의 통합 움직임도 급류를 타면서 신당의 동력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2월 중순까지 신당 세력의 통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과 신당으로 야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4선인 김성곤 의원(여수갑)이 '호남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호남 중진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등 호남 정치권의 재편도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인적 쇄신, 신당 창당, 지역 민심의 변화 욕구 등이 맞물리면서 탄핵 폭풍이 몰아쳤던 지난 17대 총선에 버금가는 호남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야권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하지만 야권 재편이 이뤄지더라도 호남 민심의 공감을 얻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 통합 밀거름 되고파”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출신 4선 김성곤(여수갑)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호남 지역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피해 농어민 지원 기금 1조 조성

### 한중FTA 비준안 통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 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협정이 발효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향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

9%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수산물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

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양허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또,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원의 상생 기금을 관련 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 속에 조성하기로 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1번지 / TEL 062)226-0001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1번지 / TEL 062)226-0001

원가차량 표준 연비 및 용량 • E 200 1,999cc, 1,639kg, 7G-TRONIC PLUS, 4WD(전면) 12.0km/9.0(도시)~10.3km/9.0, 3.34(고속)~14.4km/9.0, 30.0km, 4WD(전면) 14.0kg/9.0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4WD(전면) 14.1km/9.0(도시)~12.4km/9.0, 3.34(고속)~17.0km/9.0, 28.0km, 4WD(전면) 14.0kg/9.0 • E 300 3,499cc, 1,790kg, 7G-TRONIC PLUS, 4WD(전면) 9.7km/9.0(도시)~8.4km/9.0, 3.34(고속)~11.0km/9.0, 48.0km, 4WD(전면) 11.0kg/9.0 • E 300 4MATIC 3,499cc, 1,800kg, 7G-TRONIC PLUS, 4WD(전면) 9.1km/9.0(도시)~8.0km/9.0, 3.34(고속)~10.6km/9.0, 30.0km, 4WD(전면) 11.0kg/9.0 • E 350 BlueTEC 4MATIC 2,987cc, 2,045kg, 7G-TRONIC PLUS, 4WD(전면) 12.6km/9.0(도시)~11.2km/9.0, 3.34(고속)~14.7km/9.0, 30.0km, 4WD(전면) 13.0kg/9.0 • E 400 4MATIC 2,999cc, 1,935kg, 7G-TRONIC PLUS, 4WD(전면) 9.3km/9.0(도시)~8.1km/9.0, 3.34(고속)~11.3km/9.0, 58.0km, 4WD(전면) 11.0kg/9.0 • E 63 AMG 4MATIC 5,461cc, 2,02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4WD(전면) 7.6km/9.0(도시)~6.5km/9.0, 3.34(고속)~9.3km/9.0, 58.0km, 4WD(전면) 23.0kg/9.0 ※ 본 연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비 측정 방법과 측정 조건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